

## IV. 日本 動靜

日本銀行, 美國  
銀行의 經驗을  
참고하여 自己  
改革을 서둘러  
야

## 「自己革新」요구되는 日本 銀行

- 美國銀行의 經驗 참고해야
  - 日本의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지나친 規制와 保護 方式은 止양되지 않으면 안됨
  - 當國과 은행 經營자는 80년대 금융 위기로부터 再起한 米國의 經驗을 살려 現行의 銀行 危機를 극복해야 함
    - 米國의 은행은 保護되고 規制된 市場에서 崩壞 一步 直前에 있었으나, 80년대에 經營合理化 조치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였음
- 經營 技法의 改善이 重要
  - 日本의 銀行이 나아갈 方向은 업무의 專門化, 리스크 管理의 철저, 顧客의 수요에 적합한 新商品을 開發·提供하는 것임
    - 그러나 현재 日本에서 進行되고 있는 銀行의 大型 合併은 반드시 올바른 選擇이라고는 할 수 없음
  - 日本의 銀行은 자신들의 문제를 政府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熟知하여, 근본적인 自己 革新에 전념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할 것임

(「日本經濟新聞」, 12.4)

日 海運業界의  
赤字構造 改善  
에는 日本的 經  
營 시스템의 脫  
皮와 費用節減  
노력이 요구됨

## 日本 海運業界의 脫「日本 經營시스템」

- 海運業界의 심각한 赤字
  - 海運業界의 국제경쟁 심화로 日本 海運業界는 엄청난 赤字經營을 감수하고 있음
  - 運輸省은 日本人 선원의 乘船의무 완화 等 制度改革에 치중하고 있지만, 赤字構造의 개선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
    - 70년대에 5만명 이상이었던 日本인 외항선원의 數가 93년에는 9,700명으로 감소
- 日本的 經營에서 脫皮
  - 日本 海運業界 고전의 배경은 國內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높은 코스트와 日本的 經營 시스템의 한계 때문임
  - 日本 海運業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코스트를 저하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日本的 經營 시스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관행에 기초한 子會社와의 관계나 人事制度의

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

- 本社 기능의 海外移轉, 해외 거점의 現地化도 중요한 테마가 될 것임 (「日本經濟新聞」, 12월2일)

최근 경기 회복의 실마리를 모색 중인 日本은 특히 중소기업의 不振이 커다란 걸림돌로 浮上

### 경기 회복의 걸림돌, 중소기업의 부진

#### ○ 심화되는 兩極化 현상

- 대기업은 착실히 경기 회복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데, 內需 의존적인 경공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
  - 이는 엔高로 급증하는 輸入品이 국내시장을 크게 침식하여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위협하기 때문임
- 엔高 국면에 대기업은 적극적인 리스트럭처링으로 대응한 반면, 중소기업은 리스트럭처링의 여지가 없었음
  - 대기업은 不況하에서도 지속적인 輸出 超過를 기록해 온 반면, 중소기업은 87년 이후 대폭적인 수입 초과 상태

#### ○ 「價格 破壞」가 중소기업의 設備投資 不振으로 직결

- 과거 경기 회복 국면時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가 대기업을 先行하는 패턴과는 달리, 올해 대기업 설비투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중소기업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임
- 중소기업 설비 투자가 低調한 원인
  - ① 소비자 주도적인 가격 파괴에 의해 收益率 低下
  - ② 수입 증가에 따른 受注 減少로 設備 稼動率의 低調
  - ③ 비블期的 설비 확장시 발생한 借入金의 償還 負擔
  - ④ 물가 하락 → 實質 金利 上昇 → 借入金 償還 負擔

#### ○ 規制緩和를 제2의 創業 찬스로

-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는 資金·人材 및 노하우 축적 등 대기업에 비해 많은 제약 때문에 그 성장 기반을 국내에 둘 수 밖에 없음
- 철저한 發想 轉換下에서 새로운 業態나 서비스, 시스템을 중소기업 스스로 개발하여,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제2의 創業을 목표로 活力을 再生할 수밖에 없음
  - 특히 최근 진행되는 규제완화의 큰 틀 속에서 새로운 市場 進入을 최대의 비즈니스 찬스로 활용해야 함

(「日本經濟新聞」, 12.1)